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재현방식의 딜레마: 살롯 브론테의 『빌레트』 속 루시를 중심으로

박찬미

살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마지막 소설 『빌레트』(*Villette*)는 영국에서 정체불명의 사건으로 가족을 잃게 된 고아 루시 스노우(Lucy Snow)가 라바세쿠르(Labassecour)의 빌레트(Villette)라는 이국적 공간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오랜 꿈이었던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는 이야기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주변부에 위치했던 개인이 마침내 사회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고 독자성 및 주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루시를 모든 면에서 성공한 인물로 간주한다. 예컨대 메이너드(John Maynard)는 루시가 인종이나 언어, 음식, 사소한 풍습까지 모두 이질적인 불안정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 가까스로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Bildungsroman” 300)고 보며, 크로스비(Christina Crosby)는 『빌레트』가 “여성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 내 적합한 위치를 찾아가는 서사”(the drama of a woman’s search for her own true identity and proper place in the world; 701)라고 평가한다.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주체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루시를 성공한 여성이라고 평하는 이들의 의견은 타당한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메이너드와 크로스비의 주장대로 『빌레트』를 완벽한 성장소설로 이해한다면 루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점을 간과하고, 그녀를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인물로 인식해버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빌레트』의 주인공 루시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장소설 속 주인공들과는 달리 모종의 차별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려 한다.

메이너드는 『빌레트』의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루시가 성적으로 일깨워진다고 지적한다(Brontë 164). 그러나 그녀의 성적 욕망은 점진적으로 일깨워진다고보다는 사실상 처음부터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루시는 폴리나(Paulina Mary Home)가 아버지 홈(Mr. Home)과 존(Dr. John Graham)에게 드러내는 성적인 욕망을 포착해내기도 하고, 폴리나에게 소위 ‘연애코치’를 해주기도 한다. 어린 나

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성숙한 폴리나 못지않게 루시도 성적으로 일깨워져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가 성적으로 성장해간다고 보는 메이너드의 주장(*Brontë* 180)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작품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점진적 자기인식과 그로 인한 성적인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여성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적합한 표현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알맞게 표출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가부장적 사회 내 합법적으로 인가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표출방식, 즉 ‘결혼’이 아니라 그보다는 여성의 개인적 자질과 욕구가 반영된 방식을 스스로 모색해나가는 여성의 전형으로서 루시를 바라보려 한다. 또한 루시의 섹슈얼리티 표현은 주로 창조적·예술적 특성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되기에 그녀가 자신만의 섹슈얼리티를 추구해나가는 다양한 방식들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며 그와 함께 루시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암스트롱(Nancy Armstrong)에 따르면, 소설 속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결핍은 역으로 그녀/그가 사회적인 권한을 획득하고 “자기충족”(self-fulfillment)을 이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139). 즉 주인공이 초반에 경험했던 다양한 종류의 결핍은 작품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대부분 충족되고 자아 완성이나 새로운 자아의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영국에 있었을 당시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루시는 “어떻게 하면 삶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how I should make some advance in life, take another step towards an independent position; 360)¹⁾는지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한다. 가족을 모두 잃고 순식간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해버린 시점에서 루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부족한 물질적 자질을 충족시키고 미숙한 자아의 성숙을 이룩하고자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암스트롱의 공식에 따르면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인 것이다. 루시가 마침내 포부르 클로틸드(Faubourg Clotilde)의 교장이 되어 사회적 지위와 재산, 권한과 자유를 얻게 되고 마치몬트 부인(Mrs. Marchmont)으로부터 유산²⁾이라고 간주할만한 돈까지 받게 되는 것도 암스트롱에게는 자기실현과 성취의 순간이라고

1) 이후부터 「빌레트」 인용 텍스트로는 Charlotte Brontë, *Villette*(Oxford: Oxford UP, 2008)를 사용하며, 인용시에는 괄호 안에 페이지수만 표기한다.

2) 비록 루시가 친지로부터 재산을 직접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끝」(“Finis”)에서 마치몬트 부인으로부터 100파운드의 돈을 상속(493)받게 되므로 이를 나름대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될 법하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회복되고 행복한 만족감을 느껴야 할 시점에서 루시는 오히려 그와는 철저히 반대되는 감정을 경험한다. 예컨대 연인이었던 폴 에마누엘(Paul Emanuel)의 죽음³⁾을 직감한 뒤 루시는 “해가 다시 떠올랐을 때에도 몇몇 사람에게는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다!”(when the sun returned, his light was night to some!; 495)고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내뱉는다. 빅토리아 소설 속 주인공들이 일련의 사건을 겪고 성공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유산까지 상속받고 사랑까지 쟁취하는 식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빌레트』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너드의 주장처럼 섹슈얼리티의 실현은 루시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획득만큼이나 중요한 조건(Brontë 211)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루시는 누구보다도 성적으로 열려 있고 깨어있는 인물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녀의 성적 욕망은 서사가 진행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초반부터 각성된 채로 존재한다. 이는 타인의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성적 지표들을 촘촘하게 읽어내는 그녀의 예민하고 섬세한 눈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서술을 통해서 잘 파악된다. 루시에게 타자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그들이 지닌 지적 수준이나 성품, 부나 지위보다도 더욱 흥미롭게 인식된다. 그녀는 몸을 ‘잘’ 본다. 타인의 몸을 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일종의 지표로 삼아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작품의 첫 3장까지 서술되는 브레튼(Bretton) 시절의 이야기에선 브레튼 부인(Mrs. Bretton)과 존, 홈과 폴리나의 몸이 루시의 긴밀한 ‘눈’을 통해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이들의 외양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폴리나가 루시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루시에게 폴리나의 “얼굴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지구 반대편에서 유럽을 갈망하다가 주글주글해진 망명객의 얼굴보다도 더 뚜렷한 향수병의 표지”(no furrowed face of adult exile, longing for Europe at Europe’s antipodes, ever bore more legibly the signs of home sickness than did her infant visage; 12)가

3)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이 지적했던 것처럼 브론테는 폴의 죽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다와 배, 폭풍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의 죽음을 강하게 환기시킨다(138). 이 부분에 관해서 개스켈(Elizabeth Gaskell)이 쓴 『샬롯 브론테의 삶』(Life of Charlotte Brontë)을 참고하자면,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Patrick Brontë)는 딸의 새 소설이 잘 끝나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 샬롯에게 ‘주인공 남자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으로 끝맺도록 했지만, 당시 샬롯은 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을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고, 따라서 그 절충안으로 폴의 죽음에 대해 루시가 미스터리하게 언급하는 정도가 된 것이다(479).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개스켈의 언급은 결국 폴이 죽었다는 쪽에 좀더 힘을 실어준다.

나타나는 기이함을 보이기도 하고, 루시처럼 “성격이 침착한 편이어서 급작스런 변덕을 부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진기한 광경”(many a curious spectacle to those whom a cooler temperament has secured from participation in their angular vagaries; 13)이 많이 눈에 띄 정도로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폴리나는 어린아이의 몸을 지녔지만 어느 성숙한 여자처럼 “아버지의 식사 내내 시중을 듣기”(Throughout the meal she continued her attentions; 15)도 하고, 숙녀다운 모습으로 바느질에 몰두하기도 하는 모한 괴리감을 보인다. 루시는 그런 폴리나를 눈으로 집요하게 좇으면서 그녀가 아버지 흉과 존에 대해 품는 (근친상간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성적 욕망을 포착해낸다.

한 곳에 고정돼 있던 폴리의 무거운 시선이 출렁거리고, 덜덜 떨렸으며, 불꽃처럼 번쩍였다. 음울해 보이던 작은 이마가 활짝 퍼졌고 슬픈 안색이 걷혔다. 그리고 거기에는 갑작스런 열망과 간절한 기대가 자리를 매웠다. (...) “폴리에게 키스해주세요.” 흠 씨는 폴리에게 키스를 했다. 나는 폴리가 흥분해서 탄성이라도 질러 내 마음이 안정을 되찾고 편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원하는 걸 모두 얻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선 황홀한 만족감에 젖은 듯했다.

The fixed and heavy gaze swum, trembled, then glittered in fire; the small, overcast brow cleared; the sad countenance vanished, and in its place appeared a sudden eagerness, an intense expectancy. . . . “Kiss Polly.” He kissed her. I wished she would utter some hysterical cry, so that I might get relief and be at ease. She made wonderfully little noise: she seemed to have got what she wanted—all she wanted, and to be in a trance of content. (13-4)

루시는 폴리나가, 일반적인 어린아이가 그러하듯 부모로부터 사랑을 확인 받은 뒤 보이는 특유의 흥분이 아닌 “황홀한 만족감”이라는, 좀더 성숙한 방식의 감정 표현을 하는 아이임을 확인한다. 또한 루시는 아버지를 목격한 폴리나의 시선을 “불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브론테 특유의 언어 사용으로, 폴리나의 강렬한 성적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영국을 떠나고 난 뒤 폴리나의 애착심은 그레이엄에게로 향하고 그녀는 그에게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 애정을 보여준다. 마치 강아지가 제 주인을 따르듯 폴리나는 항상 그레이엄의 주변을 맴돌았으며, 어린아이 특유의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기보다는 언제나 그레이엄을 위한 희생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루

시는 폴리나의 애정을 받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녀를 “유순하지만 약간 별난 여자아이”(nothing but a docile, somewhat quaint little maiden; 32)로만 알고 있을 뿐인 브레튼 부인도 전혀 지각하지 못한 미묘한 에로스의 흐름을 알고 있으며, 흡과 그레이엄에게 하는 폴리나의 애정표현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선 성적인 욕망과 깊은 애정이 묻어있음을 잘 안다. 이는 성적으로 미숙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에는 결코 포착해낼 수 없는 사실이므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루시가 일찍부터 성적으로 성숙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입증하듯 그녀는 그레이엄의 무관심한 반응으로 인해 상처받은 폴리나에게 그레이엄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거짓 투성이”(full of faults)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되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진 말라”(we should be friendly to all, and worship none)고 조언해주기까지 한다(33).

이처럼 루시는 타인의 몸이 보여주는 성적 지표들을 꼼꼼하게 읽어낼 줄 아는 인물인데, 이것은 그녀 내면에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욕망의 표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타인의 몸에 대한 루시의 관심에 비교했을 때 타인의 그녀 몸에 대한 관심은 반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녀는 지네브라 판쇼(Ginevra Fanshaw)나 존, 폴리나 등 주변 인물들에게 “가없는 사람”(poor soul; 145), “별 볼일 없는 사람의 딸”(nobody’s daughter; 146), “조용한 루시 스노우”(quiet Lucy Snowe; 317), “해롭지 않은 그림자”(inoffensive shadow) 등으로 불리며 ‘존재감 없는 여자’로 간주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결코 잊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타인이 그녀의 육체적 존재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루시 자신은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항상 잃지 않는다. 마치몬트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루시는 “바로 이 갑갑한 방 안에서 온종일 병자를 돌보고 (...) 신경질도 받아주면서 청춘 시절을 다 흘려 보낼 게 아닌가. 지나간 시간도 좋게 말해서 행복이 넘치지 않는었는데!”(To live here, in this close room, the watcher of suffering . . . the butt of temper—through all that was to come of my youth; while all that was gone had passed, to say the least, not blissfully!)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의 젊음과 젊은 몸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만 시들할 뿐 나는 여전히 생의 원천이 활기차다고 느낀다”(The blight, I believed, was chiefly external: I still felt life at life’s sources)고 애써 자위한다(36). 사실상 이 대목을 통해서 루시가 자신의 초라한 외모를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애달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녀는 자신의 몸이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재현되는 양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⁴⁾ 루시에게 몸은 섹슈얼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봉착한다. 주지하다시피 빅토리아 사회가 여성에게 인정했던 섹슈얼리티의 합법적 표현방법은 결혼이라는 가부장적 제도규범 안에 편입하여 내면의 섹슈얼리티를 ‘아내다움’(wifhood)이나 ‘어머니다움’(maternity)이라는 공적인 가치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그 외의 표현법은 모두 비합법적이고 외설적인 것이 되는 바, 성적인 욕망을 합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대를 찾아 결혼해야만 하는데, 루시 역시 이로부터 예외될 수 없었다. 그녀는 작품 5장 「새로운 시작」(“Turning a New Leaf”)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결혼하여 이 때까지 낳은 뒤에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깨달으며 놀라워한다.

마음이 착하고 예뻐지만 지적이진 않았던 옛날의 그 소녀가 정말로 아름답고 다정해 보이는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았다. 그녀보다 훨씬 못해 보이던 사람도 그런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What a beautiful and kind-looking woman was the good-natured and comely, but unintellectual, girl become! Wifhood and maternity had changed her thus, as I have since seen them change others even less promising than she. (44)

이 대목에서 루시는 결혼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모종의 안정감과 여유, 안락함이라는 장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는 동시에 “나 또한 변했다,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 아니었다”(I was changed too, though not, I fear, for the better; 44)라며 미혼인 자신이 동창과는 반대로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도 자각한다. 이처럼 그녀는 다른 평범한 여성들처럼 결혼이라는 가부장사회의 제도 안에 편입하여 섹슈얼리티를 발현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에 이끌린다. 하지만 루시는 결혼이 모든 여성

4) 이 작품 속 여러 장면을 통해 루시가 자신의 외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예로, 20장에서 브레튼 부인과 존과 함께 음악회에 간 루시는 음악회장에 있던 “커다란 거울”(a great mirror; 209)에 비친 자신을 바라본다. 평소에 입지 않던 다소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부조화가 눈에 거슬리고 가슴 아픈 후회가 밀려왔다. 그다지 예쁘지는 않았지만 더 나쁠 수도 있었으니 어쨌든 나로서는 감사해야 했다”(It brought a jar of discord, a pang of regret; it was not flattering, yet, after all, I ought to be thankful; it might have been worse; 210)며 자기 몸의 이미지를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에게 행복함과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⁵⁾ 그러한 관습적인 제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결혼이라는 대안만 가지고선 그녀의 여성성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혼 여성인데다가 가난하고, 외국인이기까지 한 루시는 자연스레 빌레트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 사회의 가장 소외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배제시켜버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사실은 빌레트에서도 루시를 독특한 존재로, 다시 말해 주변 인물들과 달리 매우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남다른 자질은 빌레트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규범과 맞물려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포착해낸다. 그 중 한 예로, 루시와 존이 “클레오파트라”(Cleopatra) 그림을 구경하러 빌레트의 어느 회관을 방문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그림 속 “클레오파트라”는 노골적으로 신체 노출을 하면서 다소 나른하고 뇌쇄적인 포즈를 취하는 풍만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 그림은 한 여인의 초상화였는데, (...) 저울에 그녀를 올려놓으면 90에서 100킬로그램은 족히 나갈 것 같았다. (...) 그녀는 소파에 반쯤 기대 누워있었다. (...) 그리고 몸을 완전히 가리는 점잖은 옷을 입고 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It represented a woman, . . . I calculated that this lady, put into a scale of magnitude, . . . would infallibly turn from fourteen to sixteen stone. . . . She lay half-reclined on a couch . . . She ought likewise to have worn decent garments. (199-200)

“클레오파트라”를 두고서 “집시 여왕”(gipsy-queen; 200)이라고 부르는 루시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은 채 자신의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는 여성은 빌레트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며,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시 여왕”처럼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이었을 터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화랑에 걸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위

5) 루시는 결혼한 존과 폴리나 부부가 “실로 축복받은 한 쌍이었다”(This pair was blessed indeed; 436)고 평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초석”(the corner stone)이 되는 바람직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아말(Colonel de Hamal)과 관쇼처럼 서로에게 여러모로 유익하지 못한 결혼도 있다고 생각한다(477-78).

‘예술’이라고 불리는 합법적인 소비재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폴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리낌 없이 그 그림을 바라보는”(he looked at the picture himself quite at his ease, and for a very long while; 202) 한편 아말 대령도 “거무스레하고 덩치 큰 나일강의 비너스에 끌리는”(he was exceedingly taken with this dusk and portly *Venus of the Nile*; 205) 모습을 보인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는 남성 관객들과 달리, 루시는 ‘그림’이라는 예술적인 수단으로 포장된 “클레오파트라”의 섹슈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200). 의복이나 장신구를 통한 화려한 치장과 지나치게 양호한 영양상태, 신체적인 노출, 나른하고 권태로운 듯한 태도 등은 다만 타인(특히 남성)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식일 뿐 여성의 성적 욕망이 주체적이거나 창조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클레오파트라”와 유사한 방식의 섹슈얼리티 재현은 루시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와스디」(“*Vashti*”)에서 루시는 브레튼 부인, 존과 함께 빌레트의 어느 극장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정반대의 “와스디”⁶⁾를 만나게 된다. “와스디”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여성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외적으로도 “와스디”와 “클레오파트라”는 매우 대조된다. 초반에 루시는 “와스디”를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서 그녀가 다만 “한때는 한낮처럼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황혼처럼 창백하고 다 타버린 양초처럼 지친 왕비”(a queen, fair as the day once, turned pale now like twilight, and wasted like wax in flame)이자, “와스디 왕후의 그림자”(the shadow of a royal *Vashti*)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257). 그러나 극이 점차 진행되면서 루시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대변되는 억압적 남성에게 맞서는 “와스디” 배역에 매혹되기 시작한다. 루시의 눈에 비친 “꺼져버릴 것 같은 육체로 추상적인 관념들과 맞붙어 싸우는 와스디”(Scarcely a substance herself, she grapples to conflict with abstractions; 258)의 모습은 그 예술적 몸짓을 통해 모든 현세적 욕망과 충동을 뛰어넘는 존재로 승화된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체현하는

6) “와스디”라는 존재는 실존했던 인물인 “와스디”와, 그런 그녀의 일생을 연기하는 여배우 “와스디”로 나뉜다. 그러나 루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극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와스디”를 마치 한 사람처럼 간주해버린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루시의 관점을 따라 “와스디”를 진정한 여성예술가이자 가부장체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바라보고자 한다.

7) “와스디”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호색가이자 폭군이었던 아하수에로(Ahasuerus) 왕의 왕비였다. 왕은 왕비에게 벗은 몸으로 궁정에 나오라는 명령을 했지만, 왕비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폐위시키고 궁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전해진다.

그림이었다면, “와스디”는 관습의 범주를 벗어나서 ‘연기’라는 또 다른 예술적 수단을 통해 섹슈얼리티의 비역압적으로 승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루시에게 “와스디”는 그저 그런 여배우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가”(artist)였고, 존이 와스디를 “예술가가 아닌 여성으로”(as a woman, not an artist) 평가하는 듯 했을 때 그것이 “낙인 찍듯 판단”(a branding judgment)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60). 그런데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와스디”의 연기가 고조되는 순간 난데없이 극장에 불이 나버린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고조되던 극이 죽음의 장면에서 이르렀다. 모두 숨을 죽였다. (...)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드는 소동이 벌어졌다. 무대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 무슨 일일까? 관객들이 설명을 요구했다. 대답 대신 불꽃이 피어 오르고 연기 냄새가 났다. “불이야!” 관람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Toward midnight, when the deepening tragedy blackened to the death-scene, and all held their breath . . . Just then a stir, pregnant with omen, rustled behind the scenes . . . What was it? demanded the whole house. A flame, a smell of smoke replied. “Fire!” rang through the gallery. (260)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바(Susan Gubar)는 이 대목을 두고서 “와스디”의 강력한 힘과 의지가 “불”이라는 이미지로 승화되었다고 말한다(Gilbert and Gubar 425). 예기치 못한 화재로 당황한 사람들은 삼시간에 소리치며 달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폴리나는 다치게 된다. 루시는 존과 함께 다친 폴리나를 진찰하려 그녀의 집에 갔다가, 브레튼 부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 번 극장을 지나치게 된다. 그녀는 “주위가 고요하고 캄캄했다. (...) 조명등도 아까 극장에 났던 불도 다 꺼지고 까맣게 잊혔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난 바에 의하면 그 소동은 (...) 금세 진화된 사건에 불과했다”(All was silence and darkness: . . . the damps, as well as the incipient fire, extinct and forgotten. Next morning’s papers explained that it was but . . . blazed up and been quenched in a moment; 265)고 말하면서 “와스디”의 파괴적이고 체제 전복적일 것 같던 힘이 현실의 가부장적 사회에 어떤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기엔 역부족이었음을 깨닫는다. “클레오파트라”와 달리 “와스디”의 존재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잊혀진다. “와스디”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루시는 섹슈얼리티의 보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표현방식에도 타인이 그 진가를 알아봐주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영

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개인적인 욕망을 표출한다는 맥락에선 사적이지만, 욕망의 표현방식은 관습적일 수밖에 없으며 표출된 욕망은 결국 타자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공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루시는 결혼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관습적인 방식과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섹슈얼리티를 극단으로 드러내는 방식, “와스디”처럼 모든 관습과 제도로부터 벗어나 섹슈얼리티의 해방을 꾀하는 방식 등 여성 욕망 표출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한다. 그러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재현하는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개인적인 차원(루시 자신)과 사회적 차원(남성중심적인 빌레트 사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은둔자”(hermit)라고 부르고, “현명한 은둔자라면 내면의 겨울이 몇 주간 지속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삼켜버리고 감정에 자물쇠를 채워버린다”(if he be a sensible hermit-will swallow his own thoughts, and lock up his own emotions during these weeks of inward winter)면서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표현할 방식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과 내면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주는 타자가 부재하다는 사실 때문에 욕망을 내면에 담아두고, 그것의 표출을 억누르고자 한다(266).⁸⁾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루시는 자신만의 여성성을 만들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방식은 대부분 루시의 미적 취향이 반영되어 차별화된 “드레스”(dress; 131)나, “뜨개질”(lace-work; 267), “시계줄”(chain; 335)과 같은 수공업품, 특유의 독서 취향, 그녀 자신의 생각이 담긴 진술한 “글”(composition; 356) 등의 예술적 특성을 지닌 수단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루시는 마담 베크(Madame Beck)의 생일에 기숙학교 학생들이 축제 기간에 착용했던 “희고 투명한 드레스”(a transparent white dress) 대신 그림자 같은 “자줏빛이 살짝 도는 회색”(purple-gray) 드레스를 직접 만들어 지어 입는다(131). 겉보기에는 ‘덜 신겨 쓴 것 같은’ 이 검소한 드레스는 그러나, 루시가 가게를 십여 군데

8) 이러한 맥락에서 루시의 ‘마른 몸’도 설명해볼 수 있다. 그녀의 마른 몸은, 보르도(Susan Bordo)의 주장에 따르면 욕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미처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르도는 여성의 마른 몸이 남성중심사회에서 파생된 전통적 여성성에 대해 여성이 갖는 두려움과 불편부당한 위계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64). 즉 마른 몸이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욕망 억제 또는 자기부정의 결과라는 것이다(201). 따라서 루시의 마른 몸은 관습적인 여성성, 여성 섹슈얼리티의 표현방식에 대한 저항과 해방욕구가, 적절한 표현방식을 찾지 못해 욕구 불만족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라 그녀의 억눌린 욕망이 고스란히 몸에 담겨 있는 형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돌아다니는 끝에 얻게 된 옷이고, 의도된 옷이다. 마찬가지로 루시가 「약속을 지킨 폴 선생」(“M. Paul Keeps His Promise”) 장에서 폴과 학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 입었던 입었던 “분홍빛 프린트의 새 드레스”(new print dress . . . being pink in colour; 379) 역시 그녀에 의해 의도된 옷이다. 다시 말해 그녀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모습 그대로 교묘하게 계산된 복장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몸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외적인 요소들의 함의를 상기해 보았을 때, 루시가 선택했던 “자줏빛이 살짝 도는 회색” 드레스와 “분홍빛 프린트의 새 드레스”는 그녀가 섹슈얼리티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체현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절히 감추거나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아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한 판쇼와 달리 루시에게는 그녀의 성적 매력을 드러낼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자줏빛이 살짝 도는 회색” 드레스를 입었던 반면, 교외로 나들이를 갔을 때에는 폴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분홍빛 프린트의 새 드레스”를 입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에 대한 폴의 간섭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 드레스를 입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알아보아주는 타자가 존재할 때 그녀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몸이 욕망하는 것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루시의 여성성 표현은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한다. 그녀가 겪는 위기는 주로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표출되는 데 대한 가부장사회의 폭력적인 억압과 규범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는 「우정」(“Fraternity”)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남성중심의 지식사회의 모순과 폭력성이 부아세크(Boissec)와 로슈모르트(Rochemorte)라는 두 교수로 상징화된다. 루시는 그들부터 자신이 쓴 글이 위조되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들은 루시가 작문한 글이 여느 “원숙한 학자가 쓴 글”(the work of a ripe scholar; 401) 수준이라면서 그녀의 작문실력을 의심한다. 부아세크와 로슈모르트 교수의 편협한 판단의 기저에는 루시의 학문적 지식이 미흡할 것이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녀가 단지 여성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다. 그 “글”의 주인이 “원숙한 학자”가 아니라 루시이기 때문에 그녀는 감금당하면서까지 여러 방면의 학문적 지식을 묻는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루시는 “그들은 자신들이 사기라고 주장한 작품 속에서 초심자의 조야한 솜씨를 대번에 알아보지 못하는지?”(Could they not see at once the crude hand of a novice in that composition they called forgery?; 400)라고 자문하면서 지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 지식사회의 허영심과 모순, 폭력성을 지적한다. 여성 지식인에 대한 이들의 폭력성은 루시가 “홀로 빌레트에 도착한 첫날밤 환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가스등 불빛을 받으며 나타나 (...) 의지할 데 없는 외국인을 몰아붙여 정신과 기운을 쏙 빼놓고 시내 끝까지 쫓아와 숨이 턱에 닿도록 만들었던 장본인들”(Those two . . . were the very same that, projected in full gaslight from behind the pillars of a portico, had half frightened me to death on the night of my desolate arrival in Villette; 401-2)이 바로 부아세크와 로슈모르트 교수라고 상기하는 부분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그러나 루시는 남성적 규범의 억압과 간섭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끝까지 만들어어나간다. 주변부에만 머무르던 그녀는 포부르 클로틸드 여학교의 교장이 되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을 알아보는 유일한 남성 폴을 만나 그와의 결혼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안정적 실현을 기대해보게 된다. 폴이 다른 남성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그 동안 타인에 의해 무시돼 왔던 “그림자”(shadow; 317)이자 “유령”(ghost; 46)인 루시의 몸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지 않고 루시만큼이나 예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봐준다는 사실이다. 폴은 루시 내면의 “뜨거운 열정”(passionate ardour; 155)과 성적인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본다. 폴과의 사랑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루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그걸 키우려 하거나 망치려 한다면 내가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in this Love I had a vested interest; and whatever tended either to its culture or its destruction, I could not view impassibly; 468)고 하면서 그와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점점 발현되는 순간에, 루시는 “그림자”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려 한다. 이처럼 루시는 포부르 클로틸드의 여성 교장이 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성성 실현이라는 성취를 이룩하고, 모종의 사회적 권한 및 영향력도 가지게 된다. 또한 폴과의 결혼은 관습적인 제도로의 편입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이 갖는 강제성과 비자발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결혼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교묘하게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조짐은 폴이 서인도제도도 가는 도중에 익사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 폴의 죽음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 루시는 자신의 서사를 “여기서 멈추자. 당장 멈춰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이야기했다”(Here pause: pause at once. There is enough said; 496)고 말하면서 서둘러 종결시킨다. 루시의 서사는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마무리되고, 『빌레트』도 끝이 나버린다. 루시에게 섹슈얼리티 재현은 그녀의 존재감과 직결되는 바, 재현의 실패로 그녀의 서사는 끝이 나고 따

라서 그녀의 존재감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루시의 서사와 『빌레트』 서사가 동시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루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성과 섹슈얼리티의 창조적인 재현에 대해 고민하는 브론테와, 그와 관련된 여성들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생각해본다면, 이는 가부장적 남성권력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적절한 섹슈얼리티 재현의 방식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끊임없는 딜레마를 다룬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잔혹한 서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인용문헌

- 샬럿 브론테. 『빌레트 1, 2』. 안진이 옮김. 현대문화센터, 2010.
- Armstrong, Nancy. *How Novels Think: The Limits of British Individualism from 1719-1900*. New York: Colombia UP, 2005.
- Bordo, Susan.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4.
- Brontë, Charlotte. *Villette*. Oxford: Oxford UP, 2008.
- Crosby, Christina. "Charlotte Brontë's Haunted Tex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24.4 (1984): 701-15.
- Gaskell, Elizabeth Cleghorn. *The Life of Charlotte Brontë*. Leicester: Charnwood, 1988.
-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2000.
- Maynard, John. *Charlotte Brontë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_____. "The Bildungsroman." *A Companion to the Victorian Novel*. Ed. Patrick Brantlinger and William Thesing. Cornwall: Blackwell, 2009. 279-301.
- Sedgwick, Eve Kosofsky. *The Coherence of Gothic Conventions*. New York: Methuen, 1986.

ABSTRACT

Female Sexuality and Its Dilemma of Representation: The Case of Lucy Snowe in Charlotte Brontë's *Villette*

Chan Mee Park

Charlotte Brontë's last novel *Villette* is considered to be a bildungsroman novel by many critics with its storyline in which an orphan named Lucy Snowe who positions herself at the social edges, experiences significant improvement in her socioeconomic status after she moves to exotic place called Villette in Labassecour and becomes a female headmaster of Faubourg Clotilde, her long-cherished dream. In this perspective, Lucy Snowe becomes an indisputable self-made woman inasmuch as she eventually achieves an independent identity and constructs feminine selfhood by enabling herself to be able to enter into the mainstream.

Among the critics who consider *Villette* as a bildungsroman novel is John Maynard, who particularly points out that it is "the epic of [Lucy's] initiation into sexual awareness"(164) and "sexual growth"(180). While it seems obvious that Lucy's sexuality performs a crucial role in forming her selfhood and identity,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Lucy gets her sexual maturity. In contrast with Maynard's reading of *Villette* as a sexual bildungsroman, in my reading of *Villette*, I argue that Brontë does not aim to focus on the progressive self-awareness of female sexuality by which her capacity for selfhood and identity is acquired. Rather, such mature female sexuality is presented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novel; what Brontë problematizes is not whether the female character could achieve her sexual development, but whether she could find a proper representational method for her sexuality that is in accordance with male-centered societal norms.

There is a seemed-to-be desirable representational method for female sexuality in a male-oriented society, marriage. However, women in their marriage are subjected to follow male-created wifhood and maternity, and by which to reveal their sexuality. No matter how safe and permanent status the patriarchal marriage system authorizes, it does not reflect women's individual talents and desires and ultimately limits th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nsiders Lucy as a type of woman who has a keen insight into the structural absurdity and struggles to find out her own way of sexual representation within the patriarchal society. Lucy's representation of her sexuality is attempted to be realized both through a marriage with Paul Emmanuel, which deviates from a patriarchal sense of marriage in that it has willingness and autonomy from the both parts and a few creative and aesthetic methods such as clothing, acting, craft-making, writing, and even improving her own life. In this way, Lucy can successfully represent her sexuality on both a personal and a societal basis.

Yet, in spite of Lucy's desperate and persistent attempt to represent her sexuality, she meets with resistance from the male-dominated codes and principles. Moreover, the male-oriented society and its power eventually knock her down and end her narrative by killing Paul at the sea and taking away her well-crafted dream.

Key Words Charlotte Brontë, *Villette*, female sexuality, dilemma of representation, bildungsroman

